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장,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 예 홍길동주장,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미희 김순석(임영득) 남해순 맹지혜 방석태(차옥자) 석애자(진휘부) 안금자 윤정호(유옥자) 이상희
이옥남 이태일(송백현) 이항교 채명엽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김순옥(이한웅) 김준구(이소은) 맹지혜 박순자(이동수) 박은숙(정양학) 백경자(김창길)
안금자 이난수(방원석) 이명희(문영원) 이태일(송백현) 임영득(김순석)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최기훈(정계숙) 에스더여전교회 새롬애니메이션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강영성(신화순) 김경엽(손정아) 김병울(이영숙) 김수자 김옥자B(강영수) 김정연B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김태이(송대향) 민옥희(윤승현) 박권재(송명숙) 박순자(이동수)
박종삼(이명원) 방복순 방찬엽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송다해 송형기(김현숙) 이미자 이상희
전계자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정삼래 조규래 채명엽 전세력(염영분) 최기훈(정계숙) 최성현 최정희
홍정훈(김민지) 무명

📍 **일천백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영식 박준홍 방복순 송백현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소은 이승애 이어곤 임윤정 정서연 정양학
주성택 최대현 최선미 최효자 하세련 홍윤정 홍은민 홍준민 무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39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느헤미야 13장 10절 ~ 22절		
월요일	느헤미야 13장 23절 ~ 31절	목요일	호세아 2장 14절 ~ 23절
화요일	호세아 1장 1절 ~ 2장 1절	금요일	호세아 1장 1절 ~ 5절
수요일	호세아 2장 2절 ~ 13절	토요일	호세아 4장 1절 ~ 10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소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길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전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환나 시온 :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지애빈 김민지 김미희 심혜윤 최선미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이수경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수리남 : 안석철 이성욱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흥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정로교회, 출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4.09.22.

본질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

마가복음 10장 1~16절

설교: 이진우 목사

예수님은 제자 된 성도들이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 더욱 어렵고, 힘들며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교회와 성도가 지켜야 하는 질서의 대원칙을 천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대원칙을 바로 알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원칙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까? 우선 성도는,

1. **죄로 부패한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1~5절).**
 -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논쟁거리였던 이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2절).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행태로 이루어졌기에 버림받은 아내는 생존 자체에 위협을 당했습니다(2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혼을 정당화합니다. 헤루왕도 이혼하고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상황에서 만약 이혼을 반대하는 주장은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며 동시에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이혼에 찬성하게 되면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규정은 인간들의 완악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최소한 남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의 율법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이혼하라 합니다. 이는 이혼 증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이혼이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는 아내의 재혼을 허락하는 문서로, 당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은 최소한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조항은 결국 이혼을 신중하게 감토하게 하는 하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진리의 잣대를 사람들에게 무조건 들이미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려하시며, 그러면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도우며, 섬길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가졌지만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진리를 적용하되 현실을 고려해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적용함으로 바른 진리를 증거하며,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에,
 - 2. **하나님이 뜻을 바로 알아 본질과 원칙을 추구해야 합니다(6~12절).**
 - 예수님은 창세기를 인용하시며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른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원칙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6-9절). 이혼을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상 그 완악함으로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도 있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을 금지하게 되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강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은 깨지고,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기초에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이 허용한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완악한 인생에게 주시는 율법의 강화입니다. 재혼을 허가하는 이혼 증서 작성을 명하심으로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방어막을 쳐서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약자인 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당시에 쉽게 이혼당할 수 있는 불안한 처지에 있는 여인들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질적 진리를 분명하게 세긴 후,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각 사람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선택에 있어 하나님의 뜻은,
 - 3.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13~16절).**
 - 본질적인 원칙을 붙들되 현실에서 지혜롭게 적용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 바로 작은 자,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시며, 자신을 낮은 자, 약한 자로 여기지 않고, 높은 자, 강한 자로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15~16절). 어린이에는 권력이 없는 자, 낮은 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권력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과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세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낮은 자의 시각에서 보고 적용해야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며 얻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더욱 섬기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역경 또한 더욱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50 - 39

2024. 09.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총회주일

(1부) 오전 7시	사회: 배 경 철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407(통465)장 다 갈 이 (Praise)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대 표 기 도	[1부]장운주집사 (Prayer) [2부]최성현장로 [3부]배경철장로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10장 17~31절[신약 p.71]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뽀엘로 올라오라(안선)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452(통505)장 다 갈 이 (Praise)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루디아여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사회[고문]: 임 만 순 장 로
목 도	시 온 찬 양 대
성 시	시편 95편 1~2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327(통361)장 사 회 자 주님 주실 화평
기 도	[회장] 홍 유 정 집 사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16장 11~15절[신약 p.215] -[서기] 김 명 숙 권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설 교	빌립보교회의 탄생 이 진 우 목 사
예 물 봉 헌	[회계] 김 미 영 집 사
특 송	루디아여전도회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208(통246)장 다 갈 이 내 주의 나라와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갈 이
기 도	최 효 자 권 사
성 경 봉 독	요한일서 5장 13~15절 [신약 P.392]인 도 자
설 교	교회와 기도의 은혜 윤 희 진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뎀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1:30 로뎀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1: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총회주일헌금]
오늘(29일)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 1인 1만원입니다.
-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29일) 찬양예배는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 [초원/목장 연합예배]
다음 주일(10/6일) 찬양예배는 10월 초원/목장 연합예배로 합니다. 2시 40분까지 본당에서 모이신 후 초원별로 이동하여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 [4/4분기 다니엘 기도회]
4/4분기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1일(화)부터 21일(월)까지 진행됩니다.
- [공동의회]
교회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장로 2인,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11월 24일(주일) 3부 예배 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원/목장별 성경쓰기]
10월부터 12월 22일(주일)까지 각 초원/목장별 성경 쓰기(필사)를 합니다. 범위는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초원/목장별로 범위를 나누어 성경 쓰기를 진행해 주시고, 12월 22일(주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사 노트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문답공부]
학습, 세례, 입교를 위한 문답 공부가 13일(주일), 20일(주일), 27일(주일)에 진행됩니다. 각초원/목장에서는 학습, 입교, 세례자를 확인하시고, 문답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특공대]
전도특공대가 매주 목요일 전도를 합니다. 전도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목요일 오후 1시까지 교회 식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전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후 2시까지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9월 에스더 여전도회).
- [이달의 책]
9월의 책은 “상한 감정의 치유” (데이빗 A. 씨맨즈/두란노)입니다.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회 신청 시 14,400원(정가 16,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9, 10월 교회 행사 안내
 - 9월 29일(주일)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예배/총회 주일
 - 10월 1-21일 다니엘 기도회
 - 6일(주일) 초원/목장 연합예배
 - 13일(주일) 문답공부
 - 20일(주일) 문답공부
 - 27일(주일) 브라카와 함께하는 찬양예배/문답공부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연합 초원/목장 모임 찬양예배 시/ 본당

◎ 교우소식

- 김현숙 성도(사랑1/고척11) 명지성모병원 입원 치료 중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증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최정규 집사 김미영 집사	박영식 집사	김병을 장로, 이영숙 권사	사람2 개봉4 소사 총성	한나 여전도회
다음주	최상걸 장로, 이미향 권사			총성 특별 믿음 신도림 광명	드보라 여전도회

9월	1 부		2 부	3 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 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	임만순 장로	김종진 집사	윤영준 장로	임만순 장로	초원 목장 예배		이경자 권사
2주	박권재 장로	김형국 집사	박종삼 장로	박권재 장로	박종삼 장로	방원식 집사	손명화 권사
3주	최성현 장로	방원식 집사	최상걸 장로	최성현 장로	최상걸 장로	채만기 집사	오영순 권사
4주	윤영준 장로	채만기 집사	강영성 장로	윤영준 장로	담임목사	김경엽 집사	이영숙 권사